

Session 01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추구하기 (마 5-7 장)

(Pursuing a Kingdom Lifestyle)

I. 산상 수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 A. 산상 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윤리)이다. 이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며, 우리의 영적 발전 정도와 사역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과도 같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한(완전한) 순종으로 부르시며, 이 부분을 그들의 삶의 주목적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를 행하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취주시는 모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추구함으로 행할 수 있다. 순종을 추구하는 것은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신이 받는 모든 빛 가운데 살아가) (마 5:48)

- 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마 5:3-12), 이를 우리의 순종이 100 배가 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마 5:48).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것이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의에 목마른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며, 정결하게 사는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3-10)

- C. **개관:** 예수님께서서는 산상 수훈에서 우리가 **팔복**(마 5:3-12)을 살아가갈 것을 부르시며, 이와 함께 **100 배의 순종**을 추구하며(마 5:48), **6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며**(5:21-48), 우리의 마음이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을 추구해나갈 것**(마 6:1-18)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상급**(영원한/일시적인, 6:19-24)과 **공급하심**(6:24-33)에 대한 확신 가운데 행해나간다. 우리는 이를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덜 열심히 추구하거나 우리를 반대하는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 없이** 행해야 하며(마 7:1-6), 동시에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께서 간섭해주시기를 구하되**(7:7-12), 잘못된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분별하며**(7:15-20),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함**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7:13-14). 또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순종이 **시험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7:21-2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함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5:13-16), 그분 앞에 큰 자가 되며(5:19), 하늘의 보화를 얻으며(6:19-20), 현재의 시대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6:22-23)을 말씀하셨다.

- D.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활짝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8 개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팔복은 사랑, 거룩, 영적 성숙에 대해 정의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는 이 명령을 지키도록 가능케 해주는 약속을 담고 있다.

E.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관계된 6 가지의 유혹을 뿌리칩으로(5:21-48) “정원의 잡초를 뽑으며”, 5 가지의 활동을 추구함으로(6:1-18) “정원에 물을 줌으로써” 이 8 가지 꽃을 피워나가야 한다.

1. 6 가지 유혹: 분노, 음행, 혼인 언약을 무시함, 거짓 맹세를 함, 개인의 권리를 요구함, 보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감(5:21-48).

2.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 기도, 금식, 구제, 섬김, 원수를 축복하는 것(6:1-18)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는 영적 훈련이다.

II. 팔복: 간략한 정의 (마 5:3-12)

A. 심령이 가난한 것(“천국이 저희 것임”, 마 5:3)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과 사역, 교회와 사회에 돌파가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B. 돌파를 바라며 애통해 함(“위로를 받을 것임”, 마 5:4)은 우리의 마음과 사역, 교회, 사회 정의에 대한 돌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이 될 만큼 간절해짐을 말한다.

C. 온유함으로 살아감(“땅을 기업을 받을 것임”, 마 5:5)은 금식의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힘과 자원(시간, 돈, 에너지, 명성, 권세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가짐을 말한다. 온유함 또는 겸손함은 다른 이를 섬김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원이나 권세를 종의 마음으로 사용함을 말한다.

D. 의에 주리고 목마름(“배부를 것임”, 마 5:6)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에 그분의 나라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 지속적인 충성됨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삶의 다양한 시즌을 거치더라도 일관됨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들로 인해 실족하거나 실망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음을 말한다.

E. 공홀로 다른 이를 대함(“공홀히 여김을 받음”, 마 5:7)은 우리를 공격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대함을 말한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홀히 여기심을 얻는 것처럼(시 130:3-4), 우리는 그들에게 공홀을 보여야 한다. 이는 또한 불의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F.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하나님을 볼 것임”, 마 5:8)은 우리의 생각(쓴 마음이나 음행이 없이)과 동기(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돕는 것)를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G.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 마 5:9)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등의 깨어진 관계에 화평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은혜를 말한다.

H. 박해를 이겨내는 것(“천국이 저희 것임”, 마 5:10-12)은 우리가 권능 가운데 사역하며 정의를 추구함으로 사단의 왕국을 침노할 때 받는 반격들을 견디어 냄을 말한다.

I. 예수님께서서는 이 팔복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에 대해 “누구든지”, 즉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 J. 눈이 순전한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찬 생명력 있는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적 자아에 빛을 비춰주는 몸의 등불은 우리 마음의 눈이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한다.

22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빛의 근원)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2-23)